

13. Triticale 과 호밀의 사료이용에 관한 연구

이석순*, 박찬호, 장영동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

봄철 청예사료 생산에 알맞은 사료작물을 찾으려고 청예용 Triticale 2 품종, 호밀 4 품종을 1984년 10월에 파종하여 이들의 사료생산성, 사료 가치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장은 모든 출수후 20일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초장 증가율은 호밀이 Triticale보다 더 컸으며 Triticale 품종간, 호밀품종간에는 초장의 차이가 없었다.
2. 건물중은 Triticale은 출수후 20일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나 호밀은 출수기 이후에 건물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3. 건물비율은 Triticale과 호밀 모두 4월 중순까지는 11 - 13% 이었으나 호밀은 출수기 건물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나 Triticale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4. 출수기는 호밀은 4월 22 - 25일, Triticale은 5월 6일이었다. 출수기의 초장은 호밀이 Triticale보다 컸으나 건물수량, 건물비율, 가소화 건물량은 Triticale이 호밀보다 높았다.
5. Triticale이 호밀보다 잎의 길이와 폭이 크며 엽신이 전지상부 건물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컸다.
6. 호밀은 출수후 20일까지 Cellulose, Lignin 함량이 증가하나 Triticale에서는 Cellulose는 출수기까지 증가한 후 유지되며 Lignin은 증가하였다.
7. 건물소화율은 호밀에서는 출수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Triticale은 출수후 20일까지도 출수기와 비슷하였다.
8. 단백질함량, 건물소화율은 엽신에서 줄기+엽초에서보다 높았으며 Hemicellulose는 차이가 없었고 Cellulose, Lignin, ADF는 엽신에서보다 엽초+줄기에서 높았다.